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재엽* · 박주연**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4개 권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91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폭력 가해행동의 경우 응답범주가 대부분 0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8.1%가 지난 1년간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의 가해유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들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수준이 비중독군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은 성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개선,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의 의무화,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접촉 차단 강화,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료체계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폭력 가해행동,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 박사과정, 교신저자, beloved127@yonsei.ac.kr.

I. 서 론

청소년의 성폭력 발생률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기술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은 2012년 509명 대비 2015년 1,253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교폭력에서 약 10.0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경찰청, 2016). 그리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범죄 및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폭력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인천일보, 2016).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원인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조춘범, 2010; 정승민, 박영주, 2012), 인터넷 음란정보나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나타낸다(조춘범, 이현, 2012).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 활용도구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 역시 인터넷 활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외부요인의 하나로써 유해매체 노출과의 관련성,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유해매체 노출이 청소년의 성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이성식, 2004; 홍봉선, 남미애, 2012). 이성식(2004)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할 때 성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엽 외(201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음란물 이용이 성폭력 가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증가 추세인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는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촉함에 따라(여성가족부, 2017) 유해매

체에 대한 접촉 역시 용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해매체를 접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통한 성인물 경험은 52.6%로, 컴퓨터를 통한 성인물 이용경험은 26.0%로 나타나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물 접촉이 약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또한 휴대폰 성인물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2009년 7.3%에서 2014년 52.6%로 약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4)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양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문제적인 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한종철, 김인경, 2000),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선행하는 원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해당 사회적 문제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와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

청소년이 성관련 범죄행동을 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발적’ 혹은 ‘호기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경찰청, 2015)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가해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충동적인 특성에 비추어 일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자기통제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사이버섹스 중독이나 성 비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남영옥, 이상준, 2002; 남영옥, 2004).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김민(2003)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비중독자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았으며, 또한 음란물에 대한 시간 소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성적 행동을 위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Cooper, Scherer, Boies와 Gordon(199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조준범과 이현(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직접적으로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현실지각을 부분 매개하여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는 정신적인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인과 비교하여 자기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에(박재성, 2004) 스마트폰에 몰입하기 쉬우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검증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 충동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 비행이 발생하고(남영옥, 2004; 이성식, 2010; 김미숙, 2011),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 성과 관련된 콘텐츠 및 유해매체 등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거나 성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 비행이나 성폭력 가해행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정, 2010; 최정임, 정동훈, 2016). 또한 20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사회적 문제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과 성폭력 가해행동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검색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이 더욱 용이한 환경이 되었다. 여성가족부 조사(2017)에 따르면 청소년의 27.6%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를 통한 접촉이 뒤를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성인용 간행물의 경우 인터넷 만화, 즉 웹툰을 주된 경로로 하는 경우가 1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게시된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조치하거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자율규제제도를 시행하는 것 외에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무방비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프라임경제, 2016.10.6.; 디지털타임즈, 2017.5.23.). 또한 청소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 서핑 중 음란물과 관련된 광고나 링크를 잘못 클릭하거나 스팸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약 18.5%로 나타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청소년들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터넷 유해매체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특히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며, 자신의 성역할과 성태도 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무분별한 성관련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Gruber & Grube, 2000; 최정임, 정동훈, 2016 재인용).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무분별한 성적 정보를 접하게 되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음란물로 인해 자극된 성충동이 성폭력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장석현, 김도우, 김미경, 2011).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음란물을 이용한 후 성적충분이 되었거나 음란물에서 본 것을 따라하고 싶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2). 이를 통하여 음란물을 접촉한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은 수용적 음란물 추구성향 및 개방적인 성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정향미, 2008), 인터넷음란물 접촉을 통하여 성폭력 허용성이나 성매매기대 등의 인지적 요인을 매개로 성폭력에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남미애, 홍봉선, 2012). 또한 청소년이 과거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경험이나 현재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섹스에 중독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구현영, 2007).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과 성비행에 관한 양돈규와 조남근(200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과 음란채팅, 키스, 성교 등의 성비행 유형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청소년

의 경우 일반범죄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을 이용한 대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신의진 외, 2005), 음란물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행정자치부, 2012) 인터넷 음란물への 노출이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재엽 외, 2010),

한편 인터넷 음란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접촉 역시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박용수, 배철효와 서하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16.7%가 인터넷 채팅 후에 상대방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는 성관계 후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hoi et al.(2017)는 스마트폰의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성폭력의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촉하는 음란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수많은 인터넷 유해매체들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학습하게 하여 성비행 및 성폭력 가해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사용 중 의도하지 않고 유해매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조은숙, 2013),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개인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성 관련 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다(최정임, 정동훈, 2014). 여성가족부(2014)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휴대폰을 통하여 성인물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2.6%로, 청소년 2명 중 1명은 인터넷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란물에 노출되는 시기가 이른 청소년일수록 일명 ‘원 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로 불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점(심재웅, 2010)에 비추어보아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콘텐츠 노출 원인을 분석한 최정임과 정동훈(2014)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성이 낮고 성경험이 있거나 성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201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유해매체 이용이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인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스마트폰 중독군인 청소년의 경우 의미있는 타인과의 유대가 줄어드는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보는 사회유대이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로 유해매체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한다는 비행기회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김은미, 나은영과 박소라(2007)는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이 인터넷 이용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는 중독집단일수록 음란물 접촉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고,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관리 및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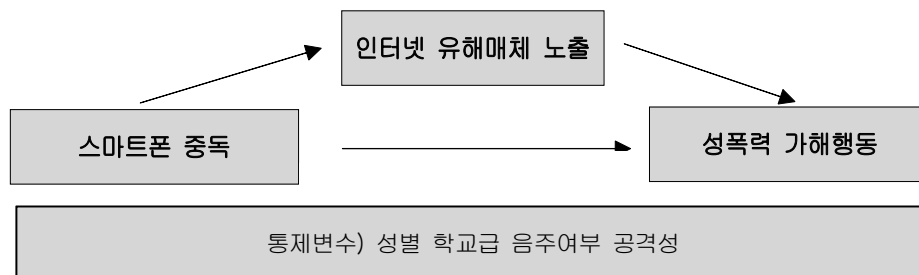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남·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하여 전국을 크게 서울·경기, 충청, 전라 및 경상지역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완료한 총 2,157부의 자료 중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91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1040917-201411-HRBR-257-0).

3. 측정도구

1) 성폭력 가해행동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성기 노출,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크게 8가지 성폭력 유형 각각의 평생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본 연구에서는 해당 8개 문항과 ‘포르노나 음란물 등을 억지로 보게 하기’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9개 문항으로 성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지난 1년간의 가해경험에 대하여 ‘없음(0)’, ‘1~2회(1)’, ‘3~5회(2)’, ‘6회이상(3)’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폭력 가해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2$ 이다.

2)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은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한주리, 허경호, 200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처음에 계획했던 스마트폰 사용시간 보다 더 오래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피로운 생각을 피한 적이 있다’, ‘기분이 우울하고 긴장됐다가 스마트폰을 하고 나면 괜찮아 진다’ 등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가끔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 그렇다(5)’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Young(1998)은 척도의 총 점수에 따라 중독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척도의 점수를 합하였을 때 20-39점에 해당하는 경우 비중독집단, 40-69점은 잠재위험집단, 70-100점은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8$ 이다.

3)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기타매체를 통한 음란물 이용과 관련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해매체 이용을 묻는 1개 문항을 활용하여 유해매체 노출을 측정하였다. ‘지난 1~2년간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성인영화, 야한 동영상, 성인잡지 등)을 접했습니까?’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없음(1)’, ‘연 1~2번(2)’, ‘월 1~2번(3)’, ‘주 1~2번(4)’, ‘거의 매일(5)’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김재엽 외, 2017; 조준범, 2012), 학교급(이영숙, 박경란, 2004), 음주여부(강은영, 2003; 주정, 2010), 공격성(이성식, 2004)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학교급을 고려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측정하였다. 학교급은 조사대상인 학교명을 기준으로 크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중학생은 0, 고등학생은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지난 1년간의 음주여부에 대하여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는 1,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는 2로 측정하였다. 공격성은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인 YSR(Youth Self-Report)을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과 홍강의(2001)가 변안하고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국내 청소년에게 적용한 K-YSR 척도 중 공격성을 측정된 19개 문항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로 측정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7$ 이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 확인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평균비교를 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화 선형모형 중 포아송 회귀분석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일반화 선형모형은 일반선형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독립성과 등분산성 가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확장한 개념이다(최현집, 2016). 그 중 포아송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가 0 이상의 정수이고, 왜도가 큰 경우에 사용한다(이일현, 2015).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성폭력 가해행동의 경우 응답범주가 대부분 0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956명(50.0%)이고 여자가 955명(50.0%)으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이 763명(54.1%)로 나타나 고등학생 648명(45.9%)에 비하여 근소하게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1년 간의 음주여부에 대하여 음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6명(24.2%), 음주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431명(75.8%)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 정도는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경우 평균 .223(표준편차 .2750)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n	%	
성별 (n=1,911)	남자	956	50.0	
	여자	955	50.0	
학교급 (n=1,411)	중학생	763	54.1	
	고등학생	648	45.9	
음주여부 (n=1,887)	예	456	24.2	
	아니오	1431	75.8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격성 (n=1,904)	.223	.2750	0	2

2. 주요 변수의 실태

1) 성폭력 가해행동의 실태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실태는 아래 표 2와 같다. 지난 1년간의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665명(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명(8.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러 몸(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기’의 경험에 대한 응답이 83명(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적으로 놀리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말하기’가 78명(4.3%),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을 보냄’이 35명(1.9%)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 등을 통한 성폭력 가해행동을 비교적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지난 1년간 성폭력 가해행동 빈도

문항	지난 1년간 가해경험							
	없음		1-2회		3-5회		6회 이상	
	n	%	n	%	n	%	n	%
1)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을 보냄	1773	98.1	20	1.1	6	.3	9	.5
2) 포르노나 음란물 등을 억지로 보게 하기	1790	99.3	8	.4	1	.1	3	.2
3) 스토킹(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것)	1796	99.6	5	.3	1	.1	2	.1
4) 신체(성기 등의 은밀한 부분) 노출	1793	99.3	6	.3	3	.2	3	.2
5) 성적으로 놀리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말하기	1722	95.7	49	2.7	17	.9	12	.7
6) 일부러 몸(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기	1724	95.4	37	2.0	15	.8	31	1.7
7) 강제로 키스, 포옹, 애무를 하기	1783	98.8	9	.5	3	.2	9	.5
8)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1794	99.7	2	.1	0	0	3	.2
9)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1791	99.7	2	.1	0	0	3	.2
전체 성폭력 가해행동 여부 (n=1811)	없음				있음			
	n	%	n	%	n	%	n	%
	1,665	91.9	146	8.1				

2)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는 아래 표 3과 같다. Young(1998)의 척도 점수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구분한 결과, 잠재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254명(6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562명(29.5%), 중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91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크게 중독(위험)군과 비중독군으로 나뉘보면 이미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은 청소년이 10명 중 7명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스마트폰 소유한 청소년 집단 중 중독군에 따른 빈도

구분		빈도	%
스마트폰중독 수준 (n=1,907)	비중독군	562	29.5
	잠재위험군	1254	65.8
	중독군	91	4.8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약 139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표 4

스마트폰 소유한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구분		n	평균 사용시간(분)	표준편차	F
스마트폰중독 수준	비중독군(a)	552	101.45	81.85	78.641*** a, b < c a < b
	잠재위험군(b)	1229	150.81	203.06	
	중독군(c)	89	217.97	124.98	
	합계	1870	139.44	101.78	

보면 비중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0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약 38분가량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잠

재위험군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51분을, 중독군은 약 21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중독군은 잠재위험군과 비교하여 약 67분, 비중독군과 비교하여 약 116분 더 오래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평균 사용시간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중독수준이 심각할수록 하루 평균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중독군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시간 이상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실태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지난 1~2년간 인터넷을 통해 성인영화나 야한 동영상, 잡지 등의 음란물을 접한 빈도에 대하여 ‘전혀 없음’의 응답이 962명(51.2%)로 가장 많았으며, ‘연 1~2회’가 283명(15.1%), ‘주 1~2번’의 응답이 267명(14.2%), ‘월 1~2회’가 266명(14.1%), ‘거의 매일’이 102명(5.4%)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전반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인터넷을 통한 유해매체 노출 빈도

문항	전혀없음		연 1~2번		월1~2번		주1~2번		거의매일	
	n	%	n	%	n	%	n	%	n	%
지난 1 ~ 2년간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성인영화, 야한 동영상, 성인 잡지 등)을 접했습니까? (n=1880)	962	51.2	283	15.1	266	14.1	267	14.2	102	5.4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수준을 비교한 표 6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평균은 2.0757점으로 연 1~2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중독군의 경우 평균 1.8556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잠재위험군은 2.1329점, 중독군은 2.6517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각 집단

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중독군의 경우 비중독군 및 잠재위험군에 비해 인터넷 유해매체의 노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비중독군(a)	554	1.8556	1.18950	18.043*** a, b < c a < b
스마트폰중독 수준	잠재위험군(b)	1234	2.1329	1.31625
	중독군(c)	89	2.6517	1.57467
	합계	1877	2.0757	1.30549

3.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 간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성폭력 가해행동,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r=.147$) 및 성폭력 가해행동($r=.096$)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은 성폭력 가해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r=.191$)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항목	(1)	(2)	(3)	(4)	(5)	(6)	(7)
(1) 성별	1						
(2) 학교급	-.235***	1					
(3) 음주여부	-.144***	.195***	1				
(4) 공격성	.068**	-.004	.152***	1			
(5) 스마트폰 중독	.102***	-.055*	.094***	.326***	1		
(6)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473***	.312***	.231***	.106***	.147***	1	
(7) 성폭력 가해행동	-.027	-.033	.124***	.092***	.096***	.191***	1

중독이 심해질수록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및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고,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종속변수인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8). 모형검증에 앞서 해당 데이터가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이탈도를 확인하였다. 총 이탈도를 나타내는 값(deviance/df)이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하며, 4보다 큰 경우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이일현, 2015). 표 8의 총 이탈도는 1.522로 4보다 작으므로 데이터가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표 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 종속변수	성폭력 가해행동		
	B	SE	Wald
constant	-3.760***	.2081	326.617
성별	.131	.1024	1.648
학교급	.541***	.1051	26.555
음주여부	1.015***	.1041	95.039
공격성	.035***	.0072	24.015
스마트폰중독	.031***	.0033	86.190
LL x2		309.057***	
LL		-1175.906	
deviance/df		1.522	

* $p < .05$, ** $p < .01$, *** $p < .001$ / reference group : 성별(남자=1), 학교급(중학생=0), 음주여부(아니오=1)

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성폭력 가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일 경우, 최근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9).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모형검증에 앞서 해당 데이터가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이탈도를 확인하였으며, Model 1의 총 이탈도는 .559로 4보다 작으므로 데이터가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남자청소년일 경우, 고등학생일 경우, 최근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9, Model 2). Model 2의 총 이탈도(deviance/ df)는 1.362로 4보다 작게 나타나 포아송 회귀모형이 적합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 포아송

표 9

스마트폰 중독 및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Model 1 : 인터넷 유해매체노출			Model 2 : 성폭력 가해행동		
		B	SE	Wald	B	SE	Wald
constant		.626***	.0760	67.756	-3.222***	.2225	209.725
성별		-.539***	.0412	170.781	.572***	.1152	24.662
학교급		.248***	.0370	44.757	-.860***	.1083	63.043
음주여부		.120**	.0389	9.610	.867***	.1057	67.296
공격성		.007*	.0033	4.401	.029***	.0074	15.261
스마트폰중독		.007***	.0013	24.042	.017***	.0033	26.816
인터넷 유해매체노출					.589***	.0405	211.564
LL x2			326.705***			530.435***	
LL			-2164.667			-1053.361	
deviance/df			.559			1.362	

* $p<.05$, ** $p<.01$, *** $p<.001$ / reference group : 성별(남자=1), 학교급(중학생=0), 음주여부(아니오=1)

회귀분석 결과 여자청소년일 경우, 중학생일 경우, 최근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공격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수록,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인터넷 유해매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Sobel test가 연구모형의 추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시한 대안인 SP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랩 방법의 경우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고 본다(허원무, 2013). SPSS Macro를 통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부트스트랩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직접효과의 크기는 $B=.0086(.0020 \sim .0152)$ 로, 매개변수인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B=.0034(.0019 \sim .0056)$ 로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총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B=.0120$ 이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054, 상한값은 .0186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은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경로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0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매개효과			
	B	SE	BC	95% CI
스마트폰 중독→성폭력 가해행동의 직접효과	.0086	.0034	.0020 ~ .0152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간접효과	.0034	.0009	.0019 ~ .0056	
스마트폰 중독→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성폭력 가해행동의 총 효과	.0120	.0034	.0054 ~ .018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 1,91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지난 1년간 성폭력 가해행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6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8.1%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해유형을 살펴보면 고의적인 신체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3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78명(4.3%),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보낸 경험이 35명(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유형이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가벼운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5).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응답자 1,907명 중 약 70.6%인 1,345명이 중독(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들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중독군의 경우 평균 1.8556점, 잠재위험군은 2.1329점, 중독군은 2.6517점으로 중독(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전체 평균인 2.07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독군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평균은 비중독군과 잠재위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경호(2016)의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과 유해매체 이용의 관계를 검증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및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중 성별, 학교급에 따라 특징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여성가족부, 2014; Ybarra & Mitchell, 2005; Romito & Beltramini, 2011). 반면 성폭력 가해행동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Borowsky, Hogan & Ireland, 1997; 이은숙, 강희순, 2014; 이천현 외, 2015)와 상반된 결과가 나

은 이유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대하여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낮으며(이영숙, 박경란, 2004; 최철일, 박자연, 2004), 성폭력 행동에 대한 민감성 역시 여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최인숙, 김정인, 2015).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성폭력 가해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영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의 주요 원인이 호기심과 우발적인 경우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대검찰청, 2016)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4).

넷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수록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은숙(2013), 최정임과 정동훈(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것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장석현, 김도우, 김미경, 2011; 남미애, 홍봉선, 2012)를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다소 부족했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을 매개로 하여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이 스마트폰 중독과 성폭력 가해행동을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성폭력 가해행동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김재엽 외, 2010; 조춘범, 이현, 2012; 김경호, 2016).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3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6). 그러나 성교육의 구체

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학교장의 인식에 따라 형식적인 수준의 성교육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의 성폭력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검증한 청소년의 성태도나 성행동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근거로(이영숙, 박경란, 2004; 김정규, 2010; 최정임, 정동훈, 2016)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각각의 인식과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라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해매체에 대한 경각심과 성폭력 행동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성적 충동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우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전문가 등의 전문가 개입을 통하여 사전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위험없는 핸드폰’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부모 및 교사에게 보급하였고 이를 통해 핸드폰 사용과 유해매체 노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이처럼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청소년이 대부분의 생활시간 보내는 가정 및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자주 이용하는 웹툰, 유튜브, SNS, 포털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해매체 게시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링크된 유해사이트 광고배너를 차단하는 등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

여 관련 산업분야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웹툰,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유해매체 노출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적 콘텐츠를 선별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인터넷 유해매체의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

넷째,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에 따라 보호요인에도 차이가 있으므로(한상철, 2009),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의 원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개선 등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유해매체의 노출을 매개로 성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상담교사 등 전문가들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스마트폰 중독을 통한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로 인하여 왜곡된 성 인지를 교정하여 성폭력 행동의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전국 4개 지역에 한정하여 유의표집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 각 단위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포괄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 관한 일반화된 연구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의 특성상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엄격한 의미에서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변수들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및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 및 성폭력 가해행동이 성별, 학교급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이영숙, 박경란,

2004; 최청일, 박자연, 2004; 이은숙, 강희순, 2014; 김재엽, 김희진, 장대연, 이현, 2017).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03).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287.
-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경찰청 (2015). **2015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16). **16년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통계 등 현황**. 서울: 여성청소년과.
- 김경호 (2016).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유해매체 이용, 공격성 간의 순환적 관계의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3), 51-74.
- 김미숙 (2011).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115-138.
- 김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53-83.
- 김성숙, 구현영 (2007).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7), 1202-1211.
- 김영민, 임영식 (2014).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종단적 변화 추이: 부모, 또래, 교사애착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303-327.
-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4(6), 45-84.
-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21(2), 209-257.
- 김정규 (2010).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통제요인들의 변이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21(2), 97-128.
- 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1, 79-106.
- 김재엽, 김희진, 장대연, 이현 (201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유해매체 접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2), 111-136.
- 남미애, 홍봉선 (2012).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9), 93-124.

- 남영옥, 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남영옥 (2004).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연구**, 11(1), 167-192.
- 대검찰청 (2016). **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디지털타임즈 (2017.5.23). 전체 이용가에 성폭행까지... 웹툰 선정성·폭력성 '여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302101231043001에서 2017년 6월 20일 인출.
- 박용수, 배철효, 서하성 (2008). 청소년 성비행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5(2), 131-163.
- 박재성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과 자기통제기대의 구조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3), 1-17.
-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5). 아동·청소년의 또래간 성폭력 현황 관련 자료. **또래간 성폭력 문화개선을 위한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자료집**, 21-36.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6년 『보건교육 및 성교육』 운영 안내**. 서울: 체육건강과.
- 신의진, 오태성, 이영준, 송원영, 이경숙, 유은희 (2005).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놀이치료연구**, 9(1), 39-52.
- 심재웅 (2010).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6, 75-104.
- 양돈규, 조남근 (2004).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과 성비행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1), 325-347.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권익기획과.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청소년보호과.
- 여성가족부 (2017).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가족정책실.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성식 (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형사정책연구**, 15(1), 21-154.
- 이성식 (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11(2), 23-44.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원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1(2), 153-175.

이영숙, 박경란 (2004). 청소년의 성폭력 개념 및 원인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6(4), 157-166.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이일현 (2015). **Easy 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천현, 김지선, 황지태, 김한균, 박성훈, 유진, 강태경, 김지영, 임석순, 박준희, 김대근, 최영신, 김정연, 안성훈, 김민영, 임정호, 권수진, 박학모, 윤지영 (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5)**.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인천일보 (2016.9.22.) 청소년 스마트폰 성범죄, 2년새 2배 늘었다. 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27275에서 2017년 6월 1일 인출.

장석현, 김도우, 김미경 (2011).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 133-154.

정승민, 박영주 (2012). 가정 및 학교환경과 인터넷중독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272-300.

정향미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과 음란물 추구성향 및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1-91.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291-314.

조춘범 (2010).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지각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8), 129-155.

조춘범 (2012).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2(1), 145-172.

조춘범, 이현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12), 31-60.

- 주정 (2010). 청소년 알코올정책 및 음주폐해 예방활동을 위한 대안. **복지행정논총**, 20(2), 85-117.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 최정임, 정동훈 (2014).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445-455.
- 최정임, 정동훈 (2016). 성태도, 대인관계, 스마트폰 이용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17(2), 1-34.
- 최청일, 박자연 (2004). 대학(원)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학생연구**, 33, 305-336.
- 최현집 (2016). **일반화 선형모형**. 서울: 해남.
- 프라임경제 (2016.10.6.). 인터넷 음란개인방송, 법적규제 없어 사실상 방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0247>에서 2017년 6월 20일 인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10대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 행태 조사.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81, 87-96.
- 한상철 (2009).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85-210.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103-114.
- 한주리, 허경호 (2004). 휴대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26-247.
- 행정자치부 (2012). **2012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 서울: 행정자치부.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 홍봉선, 남미애 (2012).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0, 9-39.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orowsky, I. W., Hogan, M., & Ireland, M. (1997). Adolescent sexual aggressi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diatrics*, 100(6), e7-e7.
- Choi, E. P. H., Wong, J. Y. H., & Fong, D. Y. T. (2017). An emerging risk

- factor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The use of smartphone dating applications.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4(5), e263-e264.
- Cooper, A., Scherer, C. R., Boies, S. C., & Gordon, B. L. (1999). Sexuality on the Internet: From sexual exploration to pathological expres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2), 154.
- Gruber, E., & Grube,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72(3), 21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omito, P., & Beltramini, L. (2011). Watching pornography: Gender differences, violence and victimization. An exploratory study in Italy. *Violence against women*, 17(10), 1313-1326.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national survey. *Cyberpsychology & behavior*, 8(5), 473-486.
-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on sexual assaul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exposure to harmful internet media

Kim, Jaeyop* · Kwak, Ju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on sexual assaul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exposure to harmful internet media. The data was harves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four regions of South Korea. A total of 1,911 adolescents who responded that using a smartphone were utiliz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Poisson regression and bootstrapping mediation methods were employed. Our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is associated with sexual assault, and the exposure to harmful internet media has a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appropriate interventions in the spheres of both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s, sexual assault, smartphone addiction, exposure to internet harmful media

투고일: 2017. 9. 11, 심사일: 2017. 11. 8, 심사완료일: 2017. 11. 15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The first author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the Republic of Korea, doctoral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beloved127@yonsei.ac.kr.